

2010 고미술시장 분석과 향후 전망

그림3 <경매사 총 매출액 분포도>

시장의 양적인팽창과 질적인 하락

2010년 현장 경매에서 거래된 고미술품의 총 작품 수는 3347점으로 2008년 1201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작품이 거래 됐다. 2008년 조사대상 이었던 경매회사가 7개였고 2010년 실질 조사 대상이 12월 문을 연 AT옥션을 제외한 5개의 경매회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매사별 취급 작품 수의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는 고미술전문 옥션회사의 신설도 그 이유 중 하나지만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서울옥션, 아이옥션은 약 3배 가까이 출품수가 증가했고 A옥션도 2배 가량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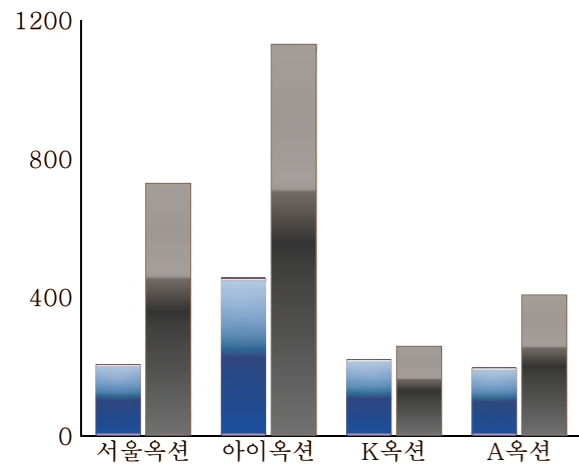


그림1 고미술 출품작수 ■ 2008 ■ 2010

이를 보면 고미술 시장이 2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낙찰총액의 증가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2008년 103억 6520만원에서 2010년 171억 2791만원으로 작품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데 비해 미미하게 증가 했음을 볼 수 있다. 작품당 평균단가를 계산해보면 2010년 1점당 767만원으로 2008년 평균단가 1612만원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경매시장이 중저가의 고미술품 편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 의미 에서는 기존의 상류층 위주의 고객에서 중산층으로 까지 고미술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반면에 기존에 큰손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A급 고미술품의 수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 이기도 하다. (그림2)

고미술 전문경매회사들의 신설과 시장구조

2010년에는 옥션단과 AT옥션 등 고미술 전문 경매회사들의 신설이 줄을 이었다. 이들 경매회사들이 기존의 경매회사들과는 차별되는 점은 옥션단은 서화에 AT옥션은 도자기와 공예품에 좀 더 전문성을 띄고 특화돼 있다는데 있다. 이를 통해 고미술 시장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이들 경매회사 고유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진다. 고미술품의 총 낙찰 액 대비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매출액 분포도(그림3)를 보면 서울옥션이 여전히 고미술시장의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2008년과 비교해 영향력이 감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신설 경매회사 들이 점유율을 가져 가면서 고미술경매시장이 예전에 서울옥션, 아이옥션, K옥션의 삼파전 양상에서, 좀더 다각화되는 시장구조로 변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만 해도 고미술 경매에서 한 축 이었던 K옥션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 었던 것도 눈에 띄는 점으로 K옥션이 고미술보다는 현대미술 분야에 좀더 치중 하려는 최근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경매회사들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는 곳은 바로 A옥션 이다. 2008년 대비 342%의 매출성장을 보이면서 총매출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전체시장 점유율 또한 크게 높이면서 6개의 경매 회사 중 유일한 지방 경매회사 라는 자신만의 이점을 특 장점화 시키는데 성공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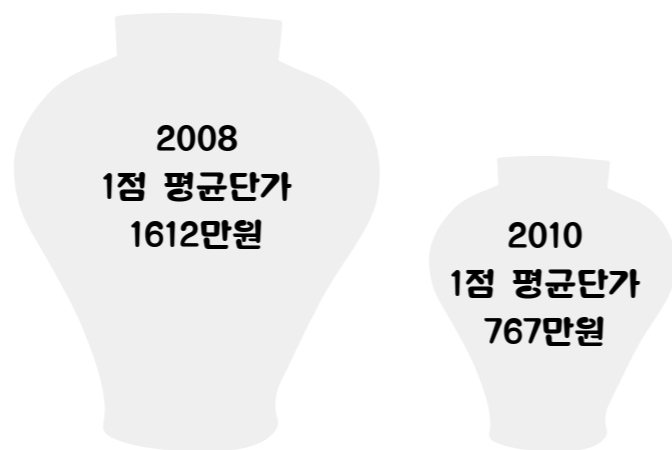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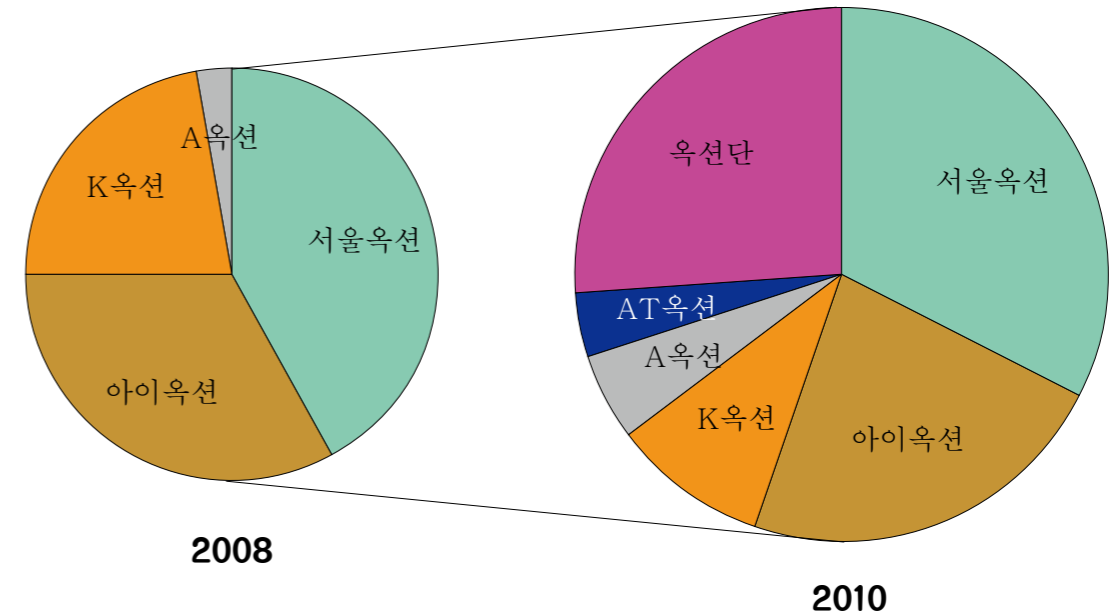


그림2 1점당 평균단가 (낙찰총액/낙찰작품수)



종합 및 2011년 전망

2010년은 시장경기 침체로 인해 얼어붙은 고미술시장의 한파가 채 가시지 않는 가운데 각 경매회사들은 위기 탈출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고심한 한 해였다. 서울옥션의 "조선의 고가구 경매", 아이옥션의 "부채전 경매" 등, 기존 경매와는 차별화된 주제로 경매하는 특성화된 기획경매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열보였다. 이는 기존의 여러 종류의 작품들을 한 회차로 묶어서 경매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경매회사인 소더비나, 크리스티 처럼 주제와 종류별로 행해지는 경매 시스템을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존 경매에 식상한 고객들의 주의를 다시 환기 시키고, 특정 고객을 결집 시키는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옥션의 디자인경매와 K옥션의 보석, 시계 경매 또한 고미술의 분야는 아니지만 기획경매 나아가는 경향의 한 예로 기존의 미술시장의 한계를 느낀 옥션 회사들이 다른 분야를 통해 시장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려고 하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2011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서화분야에 발이 넓은 옥션단이나 도자기와 공예품에 좀 더 전문성을 갖춘 AT옥션과 같은 신생 경매 회사들을 중심으로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좀더 세분화 되고 기획화된 경매를 위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한정된 수요와 공급 속에 시장을 꾸려 나가야 하는 고미술시장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자료정리 · 신용일



옥션단 1회 경매에서 17억 1000만원에 국내 고미술 최고가를 경신한 <와유첩(臥遊帖) 9책 : 금강산(金剛山)> 작자미상